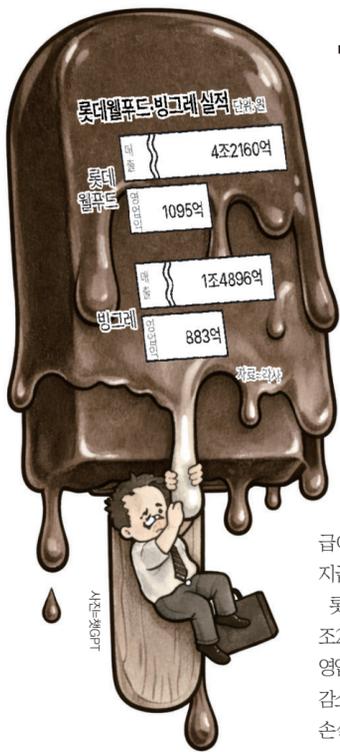


# 수익 뚝뚝, 고난의 식품사... 살길은 구조조정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환율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가격 인상에 제약을 받는 식품업체가 고정비 절감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4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45세 이상(1981년 이전 출생)이고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다.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10~15년 미만은 기준 급여 18개월치, 15년 이상은 24개월치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4조216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0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3% 감소했다. 특히 4분기에는 10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카카오와 유제품 등 원재료

고물가·고환율 직격탄... 가격 인상까지 막히자 특단 조치 롯데웰푸드·빙그레·파리크라상 등 잇단 눈물의 희망퇴직 롯데칠성 광주·오포공장 폐쇄... 매일유업은 자회사 흡수

가격 상승과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외형이 커져도 원가 압박을 흡수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빙그레도 지난 1월 헤대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빙그레는 4월 헤대아이스크림과의 합병을 앞두고 조직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빙그레 영업이익은 883억 원으로 32.7% 감소했고 매출은 1조4896억 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는 모두 빙과류 비중이 큰데, 저출산으

로 시장 성장성이 둔화된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커 내수 의존도가 높은 빙과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긴축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파리바게뜨·파스쿠찌 등을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인력 조정 카드를 다시 꺼냈다.

CJ제일제당 역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윤석환 대표는 지난해 10월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파괴적 변화와 혁신

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야 한다”며 “현금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생존과 본질에 집중하는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612억 원으로 15.2% 감소했고 매출도 17조 7549억 원으로 0.6% 줄었다.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에만 그치지 않는다. 생산 거점 통폐합과 자회사 재통합 등 설비·조직 슬림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전국 6개 공장 중 광주공장과 오포공장을 올해 중 폐쇄하고, 나머지 4개 공장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공장 가동을 단순히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후 설비를 정리하고 물량을 효율 공장으로 집중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매일유업은 2021년 10월 분사했던 건강 기능식품 자회사 매일헬스뉴트리션을 흡

수합병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와 누적 적자 등으로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인사·회계·물류 등 중부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성장 기대가 컸던 건기식 시장에서도 마케팅·유통비 부담이 커지며, ‘분사→확장’보다 ‘통합→효율’이 유리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에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부자재비, 전기료, 인건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고환율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손절 여지가 거의 없다”며 “가격 인상은 정부 기조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은 가장 즉각적인 비용 절감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 비중이 낮은 내수 중심 기업일수록 수익성 압박이 커 올해도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현대차, 사업 목적에 ‘車 대여’ 추가... 렌터카 뛰어든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대여사업에 진출해 구독 플랫폼 운영을 넘어 차량 대여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26일 현대차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다”라며 “기존의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자동차 구독형 프로그램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 고도화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구독하는 서비스다. 실제 차량은 제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고 현대차는 플랫폼만 운영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현재 일 단위로 구독할 수 있는 차종은 스타리아,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N, 아이오닉6, 아반떼N, 넥소 등 10종이 채 안되고 서비스 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으로 국한돼 있다.



‘2026 올해의 차’로 선정된 현대차 아이오닉9. KAJA

2019년 1월	자동차구독 프로그램 출시
2022년 3월	중고차사업 신규사업 추가
2023년 10월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사업 출범
2026년 3월	자동차대여사업 신규사업 추가
2026년 중	렌터카사업 출범 전망

### 구독형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 고도화 직접 공급으로 차종·지역 단계적으로 확대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 고도화로 현대차는 앞으로 제휴 렌터카사와 협력을 유지하되 차량을 직접 빌려주는 역할로 나아간다. 직접 공급 체계가 자리 잡으면 차종과 지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대차가 직접 대여 사업을 관리하면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 고객이 지불하는 구독료 등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사업목적 추가와 구독형 프로그램 고도

화로 현대차가 사실상 렌터카 시장에 진출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현대차는 특히 전기차 중심으로 구독 차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연기관차보다 가격 부담이 큰 전기차를 렌트나 구독으로 먼저 경험하게 해 수요가 다소 둔화된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 구매 문턱을 낮춰 전기차 판로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같은 그룹사 기아는 이미 자동차대여사업 목적사업 중 하나로 두고 기아렌터

카를 운영 중이다. 기아는 렌터카로 운영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판매해서 중고 가치인 차량 잔존 가치를 높이는 구조를 강조하고 현대차 역시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규제가 풀리면서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단기 렌터카 사업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2018년부터 1년 미만 단기 렌터카 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있어 대기업은 플랫폼 운영이나 제휴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규제가 2024년 말 폐지되면서 대기업이 단기 렌터카 사업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영훈 기자 yhleee@skyedaily.com

## PC·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예상

### 올해까지 D램·SSD 가격 합산 130% 상승 전망

란짓 아트월 가트너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6년 전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4%, 스마트폰 출하량은 8.4% 감소할 것으로 지난달 27일 전망했다.

PC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의 원인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다. 2026년 말까지 D램과 SSD 가격은 합산 기준 1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PC 가격은 17%, 스마트폰 가격은 13% 인상될 전망이다. 수요는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는 “올해 PC,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좁히고 기기 사용 기간을 연장시켜 업그레이드 주기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상승으로 2026년 말까지 기업용 PC의 평균 사용 기간은 15%, 개인 소비자용 PC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C 교체기 늦어지면서 보안 취약성 확대와 노후 기기 관리의 복잡성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PC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

은 2025년 16%에서 2026년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PC 가격 상승으로 AI PC의 시장 침투율 50% 달성 시점도 2028년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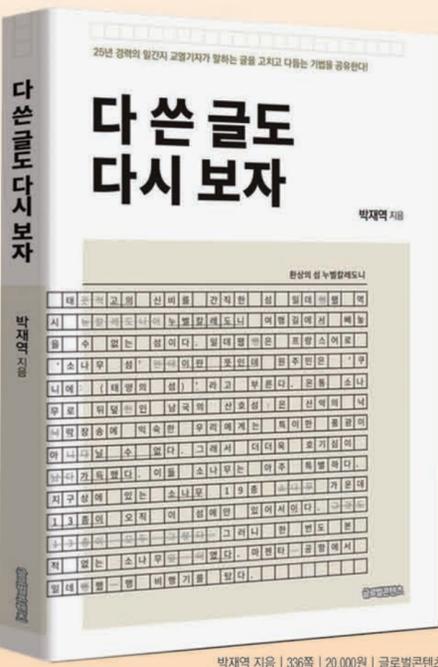
아트월 시니어 디렉터 애널리스트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제조사가 자체 흡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이 낮은 보급형 노트북의 사업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500달러(약 70만원) 미만의 보급형 PC 시장은 2028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트너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단말 가격 인상은 특히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들은 리퍼 제품이나 중고 모델을 선택하거나 기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트너는 2026년 보급형 스마트폰 구매자가 프리미엄 구매자 대비 5배 빠른 속도로 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혁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본출판